

수산분야 현안 듣기 위해 수협조합장들과 소통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수협 조합장 워크숍(Workshop) 참석 -
 - 수산물 소비위축 등 수산업계가 당면한 현안 논의
 - 정부와 수협 간 수산분야 협력 강조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6월 22일(목) 천안 수협중앙회 연수원에서 개최된 수협조합장 워크숍에 참석하여 91개 수협조합장과 함께 수산물 소비위축과 안전관리 방안 등 수산업계가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였다.

수협 조합장 워크숍은 수협 경영진의 경영능력을 배양하고 수산업 현안 사항을 토론하기 위해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며, 이번 워크숍에는 해양수산부 차관이 참석하여 정부와 수협 간 수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통하였다.

이 자리에서 송 차관은 “최근 수산물 안전에 관하여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주장으로 인해 우리 어업인은 물론 수산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과학에 기반한 소통과 정보 제공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말하는 한편, “수산업계 현안을 듣는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 나갈 계획이며, 이 자리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은 수산물 수급, 소비 활성화, 수산업계 지원대책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황준성 (044-200-5420)
		담당자	서기관	이상윤 (044-200-5429)